

냉전기 서독해군 전략의 시사점과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신 홍 중*

-
- I. 서 론
 - II. 태평양의 안보정세
 - III. 냉전기 서독의 해군전략
 - IV. 대한민국 해군의 현실적 전략기조
 - V. 결 론
-

《 국문초록 》

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유사 해양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중국이 해군 항공 전력을 상당히 증강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과는 불확실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던 과거의 서독이 설정한 전력 확충의 방향성, 냉전기 당시 NATO 조직 내에서 담당하던 '지역해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구상방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독, 지역해군전략, 해군항공, 국제 안보협력

*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75기 (3학년), 독일 해군장교 양성과정 위탁교육

I. 서론

1. 연구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신 냉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안보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잠재적 위협은 북한·중국·러시아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주변국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필요시 국가적 위협을 최일선에서 차단하게 하는 안보의 완충지대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또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다만, 주변 강국들이 해군 내 자체적인 항공전력을 증강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증강을 상당 수준 이룩해 놓은 데 반해, 우리 해군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확실한 전략적 해양안보파트너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냉전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무엇보다 국가 분단 시대를 관통했던 서독의 사례를 통해 우리 해군전략의 현실적 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냉전기 서독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는 유사점이 많지만 시대에 따른 차이점도 명백하다. 유사점으로서 당시의 서독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모두 분단국가로서 상대 진영과의 대치가 불가피한 점,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외교·경제적 분야에서도 그 동맹관계를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처한 점, 지상전 수행의 중요성과 더불어 군 조직상 육군이 가장 강세를 보이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해군은 지상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점, 각 국가의 해군 전력·전략 모두 ‘연안해군’에서 ‘지역해군’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차이점으로서 당시 서독이 NATO라는 공고한 다국적군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했음에 반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상호동맹체제만 유지하고 있는 점, 지리적으로 서독과 대한민국이 상정하고 방위해야 하는 해역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¹⁾, 각 국가가 해군에 부여한 역할과 해군의 조직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 20세기 후반과 비교하여 21세기 미래전장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시기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

1)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해역은 황해-남해-동해로 이루어지며 각 해역과의 연계성에 큰 제약이 없지만, 당시 서독이 마주하고 있는 해역은 북해와 발트해인데 독일 북쪽에 위치한 덴마크가 그 해로를 가로막으면서 인해 각 해역이 사실상 끊어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서 해역 모두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음에 반해, 당시 서독은 발트해만이 동독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해역이었다.

들에게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에 서독의 사례를 드는 이유로서는 크게 우리의 군도 당시의 서독과 같이 균형 잡힌 해군전력(특히 잠수함과 항공 전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 그리고 주변들 중 우방국으로 상정할 만한 국가들과 더욱 공고한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는 점을 언급하겠다.

2. 연구 방법

필자는 본 연구에 문헌 연구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대한민국의 현 안보상황 분석은 주로 이와 연계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 종합하였고, 객관적인 수치 등의 자료는 주로 국방백서를 참고하였다. 서독 해군에 관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유의미한 자료는 부족하였기에 필자는 독일에서 발간된 ‘국방백서 1985 (Weissbuch 1985)’와 독일 해군전력을 분석해 놓은 백과사전을 직접 분석한 후 대한민국 해군의 방향성을 위한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서독의 국방백서들 중 1985년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참고한 이유는, 이 시기에 발간된 국방백서가 동서독 통일 전 마지막으로 발간된 국방백서로서 서독연방군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국방정책과 전력의 확충 등의 부분들을 가장 완성적인 단계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독해군의 전략적 기초와 전반적인 역사 등은 필자가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인 뮌르비크 해군장교학교 (Marineschule Mürwik)의 전쟁사 (Wehrgeschichte)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수업 이외의 내용에 대한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필자의 전쟁사 교관이자 독일 내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인 위트 박사(Doktor. Jann Markus Witt)가 집필한 “Von Schwarz-Rot-Gold zu Schwarz-Rot-Gold”라는 저서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해군의 전략과 전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력의 소요는 상정된 전략에서 파생되고, 전략의 상정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안보정세에 좌지우지된다. 따라서 논문의 순서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시작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던 냉전기 당시 서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서독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의 비교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해군은 어떠한지 할지에 대한 제언으로 귀결된다.

Ⅱ. 태평양의 안보정세

1. 북한의 현황 및 주변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

1) 북한의 전반적 군사전략기조 및 해군 전력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나아간 사회주의 정권 북한. 6·25 전쟁과 8월 종파사건²⁾을 통하여 김일성은 1945년 창설된 기존의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1당 체제를 구축했다. 당이 처음 창건될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권고했던 '1국 1당' 원칙을 달성하고 당 예하의 군사조직인 조선인민군을 북한의 주력군으로 공고히 세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김일성은 체제에 반하는 세력, 혹은 수령에 충성하지 않는 세력은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적 세력들로부터 본토를 지키고 당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기반으로 하는 데에 이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존재목적이 되었다. 군사력의 절대적 필요성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과정에서 이 원칙은 내려져 왔으며 군과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에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90년 전후 공산주의 경제권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 1994년 김일성 사망에 이은 김정일의 집권,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체제를 존속해 오고 있다. 김정은은 이에 더해 국무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자리를 꿰차고 제 7차 당 대회를 통해 당위원장이자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아 기존의 수령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이른다.

북한은 '선군사상'을 통한 군사노선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공세적인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 사상의 일환으로 북한은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미래 군사 전략 '4대 군사노선³⁾'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전 인민의 무장화 : 북한의 전 주민을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후 유사시 군을 지원
- 전 국토의 요새화 : 북한 전 지역을 군사적 요새지대로 만들어 각종 군사시설로서 이용
- 전 군의 간부화 : 인민군 전 병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유사시 급격한 확대가 가능하게 함

2) 8월 종파사건 : 1956년 8월에 김일성이 당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잠재적인 반대파들을 숙청하여 절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

3)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 전 군의 현대화 :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시키며 군사과학 기술에 박차를 가함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특수성과 이러한 군사사상이 합쳐지며 당이 상정한 적, 즉 대표적인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진영인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적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과업에 온 집중을 다하는 대전략이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결국 주변국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북한만의 군사적 자주성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북한은 위의 4대 군사노선과 함께 기습전·배합전·속전속결을 주 전략으로 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핵·미사일·장사정포·잠수함·특수전 및 사이버 부대 등을 통한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 중 핵능력 고도화가 가장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핵을 통한 억제 전략이 평시에는 도발의 수단으로서, 전시에는 변형된 형태의 비대칭 제한전으로서 구사될 것이다. 2017년 9월 3일에는 풍계리에서 북한의 6번째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인 핵 실험을 통해 TNT 약 250Kt⁴⁾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은 2014년부터 이미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 군을 창설했으며 이는 육·해·공의 3군과 함께 제 4군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방향의 전력 확충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피한 후 ‘도발 → 대화 제의 → 협상’의 구도를 조성하려는 평시 행동요령으로 여겨진다(김태현, 2017, pp.157-158). 즉, 국지도발 및 분쟁을 일으킨 후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확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를 흔드는 심리전의 한 일환이다.

4) 참고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팻 맨'은 21kt,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리틀 보이' 15kt.

〈표 1〉연대별·유형별 국지도발 세부 현황⁵⁾

구분	연대/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지상	502	7	298	51	44	48	42	12
해상	559	2	22	27	12	107	180	209
공중	51	10	7	15	4	1	3	11
전자/사이버	5	0	0	0	0	0	0	5

한편,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해상도발의 증가추이가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바로 이러한 해상도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상함정 전력투사를 통한 해상도발의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해군의 전력은 다소 기형적이다.

〈표 2〉북한 해군의 주요보유함정⁶⁾

병력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함정	지원함정	잠수함정
60,000 명	430여 척	250여 척	20여 척	40여 척	70여 척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분명 엄청난 수의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것들은 아직 현대화가 미비하며 제한적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상함 전력에 있어서 북한해군은 소수의 중·대형 함정과 함께 주로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 경비정, 화력 지원정 등 대부분이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명한 ‘연안해군’이다. 이에 북한해군은 재래식 전력의 화력적 약점을 주로 해안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단, 잠수함정은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각의 배수량은 적을지라도 그 위력은 간과할 수 없다. 잠수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수중에서의 게릴라전이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70여 척의 잠수함정들 중 고래급 잠수함은 2015년에 개발되어 이미 SLBM⁷⁾ 실험에 성공한 상태이며, 더 발전된 개념의 잠수함으로서 SLBM 3기가 탑

5) 국방백서2018 p.268.

6) 국방백서2018 p.24.

7) 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재 가능한 3,000t급의 신형잠수함 또한 개발이 완료되었다.⁸⁾

2)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해군 전략

중국공산당 제 3대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서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시기 해군 사령원⁹⁾이던 류화칭이 발표한 ‘중국의 해군전략’을 통해 중국은 점차 원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개념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이 대대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내며 중국은 해양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현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주변국들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하에 둔다는 대외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는 현 미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맞불 대응이자 해양국가로서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대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해군정보국(2015)¹⁰⁾에 따르면, 중국은 류화칭이 최초로 주장한 도련선의 개념에서 나아가 방어선으로 개념을 변경하고 근해와 원해를 구분하여 해상작전반경을 설정하였다고 한다(김덕기, 2015). 여기서 이 방어선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 제1방어선 : 일본 북부 삿포로시 - 필리핀 남부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제2방어선 : 일본 남부 오키나와 - 필리핀 북부 - 베트남 남부
- 제3방어선 : 대한민국 남부 제주도 - 대만 -베트남 중부

중국은 특히 제1과 제2방어선 해역에서의 해상통제권 확보를 위한 반접근(A2: Anti-Access) 및 지역거부(AD: Area Denial) 전략¹¹⁾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해군전력 소요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까지 중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전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

8) 『KBS뉴스』, (2019.07.31.). “북한 신형 잠수함, SLBM 3개 탑재..” 핵 타격 작전 가능”

9) 해군사령원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참모총장 직책에 해당

10)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10.04.) “The PLA Navy :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11) A2 전략 : 유사시 원해로부터 중국으로 투사되는 군사력에 대한 공격을 통해 지연 및 방해 작전을 가능케 하는 전력의 확보, AD 전략 : 유사시 근해 내에서 중국에 대항한 미국 혹은 다른 동맹군의 군사적 작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력의 확보 즉, 지역거부전략

〈표 3〉 중국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¹²⁾

총 병력	전술잠수함 (척)	58
	전략핵잠수함(척)	4
	항공모함(척)	1 (+1) ¹³⁾
	순양함(척)	-
	구축함(척)	23
	호위함(척)	59
	초계함 · 연안전투함정(척)	206
240,000	소해함(척)	42
	상륙함(척)	53
	상륙정(척)	87
	지원함(척)	186
	전투기(기)	283
	헬기(기)	113

여기서 제1과 제2방어선에서의 A2/AD 전략을 위한 중국의 해군전력 확보는 특히 전략핵잠수함, 차세대 위상배열레이더 탑재 구축함,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중국은 미 해군의 항모전단 전력을 염두에 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군의 실전성 있는 훈련의 밑바탕으로서 C4ISR¹⁴⁾가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의 훈련 반경은 연안을 넘어 제1방어선 부근까지도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공전 능력 향상 및 다수의 항공모함 전단 확보를 목표로 중국은 2012년 최초로 배치된 항공모함 랴오닝에 이어 2번째 항공모함 산둥의 배치를 고대하고 있다. 랴오닝에 비해 배수량, 함재기 탑재량 및 비행갑판 설계, 레이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이는 자국 기술로 건조한 항공모함이다. 이에 더해 중국 해군은 향후 캐터필트 사출 방식으로 발함하는 비행갑판을 탑재할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해군의 기술적 한계나 운용경험의 미숙함에 기인한 문제점 등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미국 해군의 전체적인 전력에 대항하기란 불가

12) 국방백서2018 p.241.

13) 중국 2번째 항공모함 산둥 건조 완료

14)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4에 감시와 정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용어)

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중국 해군의 전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으며, 구축함·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 및 해군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미 해군 전력에 다가가고자 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자국의 연안에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수단들로 인해 적어도 중국 본토부터 제3방어선 사이의 공간에 한해서는 미군에게조차도 해상작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해역이 되었다.

해양력 투자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분야에 있어 러시아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더불어 이 시기 해군 총사령관으로서 재임하고 있던 고르시코프(Sergey Georgiyevich Gorshkov)의 해군력 발전 계획에 따라 당시의 소련은 이미 제한적이지만 ‘대양해군’으로서의 전력을 갖추었다. 이 때 고르시코프가 제안한 국가전략에 따라 러시아는 이전의 소련시절부터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자원의 확보에 있어 자국의 해양력을 적극 활용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극항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북방함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수계지리학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가들을 보내 30개의 섬, 해안, 곳을 탐사하기도 했다¹⁵⁾.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2회 일대일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전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중국과의 협업을 통하여 북극항로와 더불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함께할 것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미 2010년에 ‘동부군관구 및 동부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력 또한 적극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편, 무역전쟁 및 방어선 개념 설정 등으로 군사·외교적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또한 미국이 INF를 탈퇴¹⁶⁾한 이후 미국과 외교적으로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영토팽창사례인 2014년 크림반도 합병¹⁷⁾에서 보여준 태도에서도 나타나듯, 러시아는 지역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15) Sputnik News (2019.08.27.) “Northern Fleet Hydrographical Service Confirms Discovery of New Russian Islands in Arctic”

16)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중거리핵전력조약) : 냉전기류의 해소를 위해 1987년 12월 8일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위한 상호조약

17) 2013년 12월부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향한 시위를 통해 야권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설립되었음. 이에 친러 지역 크림반도에서는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됐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무장병

있어서 즉각적인 군사력 투자를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해군전력 현황이다.

〈표 4〉 러시아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¹⁸⁾

총 병력	전술잠수함 (척)	49
	전략핵잠수함(척)	13
	항공모함(척)	1
	순양함(척)	5
	구축함(척)	15
	호위함(척)	13
	초계함 · 연안전투함정(척)	100
150,000	소해함(척)	43
	상륙함(척)	19
	상륙정(척)	28
	지원함(척)	265
	전투기(기)	156
	헬기(기)	193

러시아 해군의 위와 같은 전력은 4개(북방/발트/흑해/태평양)의 함대와 1개 분함대(카스피)로 분산된다. 이 중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22척의 잠수함정, 8척의 전투함정, 25척의 미사일고속함정, 8척의 기뢰함정, 9척의 상륙함정¹⁹⁾이라는 전력을 보유한다. 2020년까지는 SLBM이 탑재 가능한 원자력잠수함(SSBN) ‘크냐즈 올레그’가 보레이 2급(1급의 개량형)의 2번째 함으로서 태평양 함대의 캄차카반도에 전력배치 된다.²⁰⁾ 2018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중드론 ‘포세이돈’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장거리 핵추진 어뢰이다. 포세이돈을 탑재하는 잠수함들 중 2대는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력 개입 후 크림반도 점령으로 이어지게 됨. 결국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 크림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됨. 이에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UN에서는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의 기권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채택이 무산됨.

18) 국방백서2018 p.241.

1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9, (2019), p.207.

20) Sputnik News (2019.09.03.) “New Borei-Class Attack Submarine to join Russian Pacific Fleet - Reports”

예정이다.²¹⁾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이에 더해 오스카 2급 원자력잠수함의 대함 순항 미사일 ‘그라니트’를 ‘칼리브르’로 교체하는 등 전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이 칼리브르는 러시아군의 IS퇴치 작전 중 거점 폭격에서 큰 성과를 내어 실전에서 위력도 검증된 바 있다.

러시아는 이전까지 양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전력의 현대화가 미흡한 등 경쟁국인 미국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근래 들어 항공모함의 개수 작업을 비롯해 이러한 장비의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고수하던 비대칭전력의 유지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 러시아는 경제적·군사적 목적으로 앞으로 북극해 및 극동지역의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킬 것으로 보인다(유영철, 2019).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횟수 및 규모 또한 늘려가며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동방-2018’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1981년 이래 최대 규모로서, 러시아군 측에서는 병력 30만명, 군용기 1천기 이상, 전차·장갑차 3만6천대, 군함 80척을 동원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병력 3천200명, 각종 유형의 무기·장비 900대, 군용기 30기를 파견하였다. 이후 권귀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위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²²⁾ 한편, 2019년 7월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하여 대한민국 공군 측에서 대응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중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전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2.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1) 인도태평양사령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고 트럼프 정부에 이르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사뭇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에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비중을 높이고 있다. 처

21) 『연합뉴스』. (2019.01.12.). “러시아, 핵 장작 수증드론 '포세이돈' 30기 실전배치”

22) 『연합뉴스』. (2018.09.27.). 中“‘동방-2018’ 훈련 참가 정례화 러시아와 협의해 결정”

음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방향성이 대두된 이후는 미국의 재정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군사력·경제력·기초국력과 같은 ‘경성국력’이 미국이 내세우던 정책이었다면,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혼자 힘으로 세력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곤란해진 점을 들어 정치력·외교력·문화적 영향력에 기초한 ‘연성국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에 이어 2018년 5월에는 당시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orman Mattis)가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함을 공포하였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2019(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²³⁾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내세우는 정책을 공고화하고 현재까지 미·중 무역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보아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해양 전략을 고려한 전략이자 ‘JAM-GC(국제공역에서의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전략)’와 같은 군사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원해로 진출하는 것을 인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그 견제의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미국식 대외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타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의 축소 및 재정부담 완화 정책

미국이 인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에 주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그 대외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다. 걸프전 참전과 같이 중동지역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며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던 것을 철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부터 NATO 내의 유럽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사안들까지,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동맹국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그 영향력을 필요에 한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인다. 현재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각 국가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방안을²⁴⁾²⁵⁾ 모색하고 있다.

23)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검증 가능하도록 완전한 해체, 화웨이·ZTE와 같은 중국기술의 제품 사용 금지, 대만·인도와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4) 『KBS뉴스』, (2019.01.10.), “‘시리아 철군’으로 명확해진 트럼프의 세계전략…한반도 영향은?”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럽과 대한민국에까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이었던 독일이 동·서독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군축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의 GDP대비 국방비는 1.4%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주독미군의 철수라는 강수도 내세우며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국방비 증액 압박 및 비판은 독일 이외에 NATO 회원국의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도 해당하고 있다. 미국은 NATO에서 자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1000억 달러(약 111조6900억원)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했다.²⁷⁾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에도 이어져, 미국의 요구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 현 1조389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약 6조원까지 증액하는 미측의 요구와 관련하여 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다.²⁸⁾

Ⅲ. 냉전기 서독의 해군전략

1. 서독해군의 전략기조 변화 및 전력 증강 과정

1) 50-60년대의 서독해군

1945년 5월 8-9일, 나치독일은 연합군에 대한 항복을 선언하며 사실상의 국가 존속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측에서는 독일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져가면서 독일은 4지역으로 분할 점령된다. 연합군 측에서 시행한 분할점령의 실질적인 목적은 독일의 비무장·재무장 가능성 분쇄·전쟁범죄자 처벌·나치세력의 청산에 있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나치당 및 독일국방군의 관계자들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괴링의 사형선고, 전쟁해군(Kriegsmarine)의 대표적인 지휘관이었던 에리히 레더(Erich Johann Albert Raeder)와 카를 되니츠(Karl Dönitz)의 징역형 등으로 나치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자본주

25) 『뉴스1』. (2019.08.17.). "트럼프, 참모진과 아프간 미군 철수·평화협정 방안 논의"

26) 『연합뉴스』. (2019.08.10.). "거세지는 美의 '獨 국방비' 압박...미군 철군 가능성 재차 언급"

27) 『뉴스1』. (2019.01.28.). "나토사무총장 "내년말까지 방위비 111조 증액"

28) 『연합뉴스』. (2019.09.25.). "韓美, 오늘 방위비협상 이틀째 회의... '밀당' 지속"

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독일 또한 정치적으로 이분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부터 소련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같은 해 5월과 8월에는 서독과 동독이 각각의 주권국가를 선포하며 독일은 완전히 분단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진영의 연합군 측 국가들은 서독군의 창설을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독일은 1956년까지 해군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북해와 발트해의 기뢰제거 임무만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독일분단·6·25전쟁과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냉전기류가 흐르면서 서방진영의 태도는 달라졌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해군 역사 반 (Das Naval Historical Team)’ 조직을 바탕으로 서독은 이전의 전쟁해군에서 복무했던 장교들을 소집하였고, 세계대전 당시 소련해군을 상대했던 경험을 전수받았다²⁹⁾. 이와 동시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NATO의 지휘 하에 작전하는 서독군 창설에 대해 초국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955년 11월 12일 서독은 결국 ‘독일연방군’ 창설로써 재무장에 성공함과 동시에 NATO에 가입하게 된다. 서독해군은 1956년 1월 16일 루게(Friedrich Ruge)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연방해군(Bundesmarine)’라는 명칭으로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 창설식을 거행했다.

마셜플랜³⁰⁾과 서독의 초대 연방총리 아데나워(Konrad Hermann Joseph Adenauer)의 노력에 힘입어 서독은 이전의 공업 인프라를 다시금 구축하며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서독해군은 전쟁해군 시절과 마찬가지로 길과 빌헬름스하펜³¹⁾을 중심으로 함대를 건설하였고, NATO 내부적으로는 발트해 보호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초기 작전지역을 할당받았다. 1957년부터 배치된 ‘재규어급(140/141급)’ 어뢰고속함이 성공적으로 배치됨과 동시에 1957년 4월 1일에는 2개의 기뢰전대가 실전작전 투입준비를 마쳤다. 이 시점부터 서독해군은 본격적으로 NATO연합군과 공동작전을 펼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서독해군 창설 초기의 전력 공백 또한 미국의 지원정책으로 메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1958년부터 1960년까지 ‘플레처급’ 구축함을 임대 방식으로 6척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Z-1부터 Z-6로 명명하였다. 얼마 후부터 조선소의 대대적인 보강작업에 힘입어 중대형 함정을 자

29) 서독해군이 창설된 이후에도 다수의 전쟁해군 출신 장교들이 모집되었음

30)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고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경제적·기술적 지원 위주의 유럽경제 부흥계획

31) 길은 발트해에, 빌헬름스하펜은 북해에 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독일해군의 주축 전단(사실상 함대)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국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었다. 이에 1961-1964년에는 ‘퀵급(120급)’ 호위함이, 1964-1968년 ‘함부르크급(101/101A)’ 구축함이 각 함대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1961년에는 동독해군을 겨냥한 경계임무 주 전력으로서 ‘초벨급(142급)’ 어뢰고속정이 배치되었다. 한편, 1961년부터 공군에 도입된 미국의 전투기 ‘스타트파이터 F104G’가 1963년부터 해군에도 도입되면서 해군항공전력 또한 상당히 강화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이 시기 서독해군의 초기 전략개념은 주로 잠재적 위협이 되는 동독해군으로부터 발트해를 보호하는 것이자 유사시 소련의 해군전력을 분쇄시키는 것이었다. 소련해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발트해가 한계선이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당시 약 36,000명의 병력과 함께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기뢰함, 잠수함, 전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균형 잡힌 해군을 운용하게 된 서독은 1967년부터 NATO의 전략이 수정된 이후에 ‘NATO-북익지역(Nordflankenraum)³²⁾’ 중 발트해역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연안해군’에서 ‘지역해군’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이전까지 NATO의 전략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를 통한 반격으로 응징하는 대량 보복(Massive Retaliation)이 주 전략이었으나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유연 반응(Flexible Response)³³⁾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해상전력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자정보처리(Elektronische Daten Verarbeitung)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통해 수정된 군사개념 내지는 능력이 서독해군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 서독해군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철저한 해역 통제를 통해 NATO는 전반적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하여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70-80년대의 서독해군

소련의 고르시코프가 재차 강조하였던 해군력 향상이라는 프로젝트에 힘입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대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였고, 소련은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무기체계 발전의 일환으로서 유도무기의 위협이 특히 증가하였다.

32) 여기에는 NATO 소속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서독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발트해, 북해, 아이슬란드에 인접한 해역, 셰틀랜드 제도, 페로 제도가 해당함.

33) 소련의 공격에 대응하여 최선의 효율적인 군사적 거부 내지는 저항을 통해 대응하며 핵무기 배치 내지는 핵을 통한 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상정하는 전략

서독해군 또한 이에 대응하여 1960년대 말부터 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발에 공을 들였고, 결국 1969-1970년에는 ‘튀첸스급(103급)’ 전투함이 서독해군 최초의 현대적 정밀유도탄을 탑재한 구축함이 되었다. 이 함급은 미 해군의 ‘찰스 F. 애덤스급’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된 구축함으로서 독일해군은 2003년에 퇴역할 때까지 운용하였다. 1970년부터는 앞서 동독해군에 대한 경계임무를 주로 하던 ‘초벨급’ 어뢰고속정의 무기체계도 유선유도³⁴⁾어뢰 탑재방식으로 교체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이전의 어뢰고속함 재규어급은 ‘티거급(148급)’과 ‘알바트로스(143급)’급으로 교체되었다. 한편,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1,000척 이상을 건조하며 동시에 100여척을 출동시켰던³⁵⁾ 잠수함 건조기술·운용능력이 있었던 독일은 이후 ‘206급’ 잠수함을 개발하고 1973-1975년 18척을 취역시키면서 그 기술력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이는 최초로 비자기성 선체구조³⁶⁾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사격통제장치의 혁신을 통해 어뢰의 유도 또한 가능해졌다. 유사시 적진의 연안까지 침투하여 상대의 호송선단·지원부대·잠수함들을 격침시키는 것이 주 임무³⁷⁾이었기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겨냥하여 주로 발트해에만 배치되었다. 다만, 잠수함의 크기와 척수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을 노출하였기에 서독해군은 이후에도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하였다.

1970년대의 서독해군은 앞서 언급했던 1960년대의 첫 번째 전략개념에 이어 두 차례 전략개념을 수정하였다. 두 번째 전략개념은 1972년부터 적용되었다. 규정된 서독해군의 새 임무는 발트해의 해역방어와 더불어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해 북해 내지는 경계를 접하는 다른 유역들에도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서독해군은 북해와 대서양을 잇는 해역에서의 연합작전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한다. 이어 세 번째 전략개념은 1975년에 등장했는데, 발트해에 집중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투사했던 이전과 달리 북해의 방호에도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전략적으로 ‘NATO-북지역’의 전반적인 방위를 균형 있게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80년, 서독연방안전보장평의회³⁸⁾에서 서독의 해상전력 및 해군항공전력의 담당

34) 발사하는 전투함 내지는 잠수함으로부터 어뢰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자체적으로 어뢰의 유도가 가능한 시스템.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중어뢰인 ‘범상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

35) 독일 잠수함박물관 (Deutsches U-Boot-Museum “Kriegsmarine”)에 게재.

36) 비자기성 선체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자파를 통한 위치추적을 왜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자기성 어뢰 및 탐지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짐.

37) ‘206급’ 잠수함은 어뢰가 고갈된 후에도 작전 전개가 가능하도록 선체의 둘레에 벨트를 장착시키면서 24기의 기뢰를 이 벨트에 탑재하게 하였음.

38) Der westdeutsche Bundessicherheitsrat. 독일 연방내각의 산하 위원회로서 안전보장 관련 정책에

방위구역이었던 도버해협-세틀랜드 제도까지의 작전해역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었다. 마찬가지로 NATO 파트너들도 서독해군 전력이 더 넓은 해역까지 배치되는 데에 있어서 합의하였다. 이로써 북해에서 해군이 가지는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조직적 토대가 설정될 수 있었다.

1980년 초반에는 켈른급 호위함들과 플레처급 구축함들이 더 나은 성능을 보유한 최신 대잠호위함인 '브레멘급(122급)'으로 대체되었으며, 1962년부터 1984년까지 어뢰고속함 알바트로스급은 한 번 더 개량되어 '게파드급(143A급)'으로 다시 취역하는 등, 노후화된 전력의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뢰부설 능력 신장과 상륙 전력을 통한 위협이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1979년부터 점차적으로 '파나비아 토네이도(Panavia Tornado)' 다목적 전투기가 도입되었고, 이전까지는 연락 및 구조임무만을 주로 수행하던 '시킹(Seaking)' 헬기에도 재무장이 이루어지면서 전투력이 크게 신장됨과 동시에 전반적인 전투 지원임무 또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1984-1985년에는 NATO-대서양사령부 최초로 사령관의 지휘권을 서독해군 출신의 제독이 받게 되었다. 이로써 서독해군은 명실상부 NATO 연합해군 내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증명하였고, 독일이 재통일 될 때까지도 서독해군은 지속적으로 전투력 신장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당시 서독해군은 분명 지상전을 수행하는 육군에 비해 국가방위전략에 있어서 하위의 군종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 점차적으로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어 가면서 공군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⁹⁾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당시로서는 진보된 전투기인 '파나비아 토네이도'와 '게파드급' 고속함과 더불어 수중에서는 더 늘어난 척수의 잠수함으로 발트해의 깊은 곳에 침투하여 해상전투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⁴⁰⁾ 당시 소련의 북방함대와 전략핵잠수함이 지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합동참모본부의 전쟁수행전략에 의해 서독해군은 동북대서양 지역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서독해군은 1980년대 중후반 평시 약 39,000여 명, 전시 약 64,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무기체계에 관련된 전력은 다음 표와 같다.

관한 통제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함. 1955년 10월 제 2차 아테나워 내각에서 설립되었음.

39) Florian Reichenberger, Der gedachte Krieg, Vom Wandel der Kriegsbilder in der Bundeswehr. (2018). Oldenburg: De Gruyter, p.384.

40) Florian Reichenberger, Der gedachte Krieg, Vom Wandel der Kriegsbilder in der Bundeswehr. (2018). Oldenburg: De Gruyter, p.399.

〈표5〉 서독해군 주요 무기체계⁴¹⁾

구축함	함부르크급 (4척) / 뤼첸스급 (3척)	2개 전대
호위함	브레멘급 (8척) / 쾰른급 (6척)	2개 전대
초계함 및 고속함	알바트로스급 (10척) / 게파드급 (10척) / 티거급 (20척)	4개 전대
잠수함	205/206급 (24척)	2개 전대
기뢰함	하멜른급 (10척) 등	6개 전대
군수지원함	뤼네부르크급 (8척) 등	2개 전대
대잠고속정	테티스급 등	1개 전대
정찰기	F-104G (약 30여 기)	1개 비행대대
전폭기	F-104G (약 20여 기)	1개 비행대대
	파나비아 토네이도 (112기)	2개 비행대대
해상정찰 및 대잠초계기	브레게 아틀란틱 (20기)	2개 비행대대
다목적헬기 및 연락기	링스 (12기) / 시킹 (22기) / 도르니에 (20기)	2개 비행대대

이에 더해 서독해군의 1990년대 전력보강계획에는 3척의 쾰른급 호위함과 4척의 함부르크급 구축함의 개량 내지는 대체작업, 7척의 호위함과 6척의 잠수함의 추가 도입,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전력증강계획으로서 대잠 및 해상정찰 기능이 신장된 항공기의 개발 작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⁴²⁾

3)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NATO의 전략과 동·서독의 역할 분석 및 정리

양 독일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NATO의 경계를 이루는 최전선이었음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게는 군사적 완충지대였다. 따라서 동독과 서독은 분단 이후 군사적으로는 언제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로 나누어진 각 진영의 대전략이 동·서독에게 있어 주안점이었기에 군사전략의 방향성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되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는 ‘공격 및 승리 전략’이었다. 유사시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며, 이

41)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221

42)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222

후 공격을 받을 상대 세력(NATO 진영)의 국가적 사회질서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전쟁을 이끌어낼 적절한 시점을 설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밀유지, 기습작전, 주도적이고 신속한 공격을 깊이 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각 군종 간 합동작전’이었다. 소련의 전략적인 작전계획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모든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참모진을 중심으로 지휘되고, 조정되고, 또한 훈련됨으로써 이 통합 전력은 수정되면서 발전된다. 이를 통해 육군(지상군), 공군, 해군, 그리고 전략로켓군은 이 첫 번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용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연계된 무기체계를 통한 전투’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기체계들의 연계성이 전투의 승리에 큰 요소로 작용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폭격기는 호위전투기 및 전자장비의 동원을, 구축함은 다양한 부대의 무기체계와 해군항공대 및 수중전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전략 중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과 함께 작전한다는 그 전략은 소련이 동독해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그것과 비슷했다. 1958년 동독해군은 발트해역 국가들의 함대들 및 폴란드의 함대와 함께 소련의 지도 아래 ‘통합된 해상전력(Die vereinte Seestreitkraefte)’으로서 하나의 단위부대를 창설하였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전략 뿐 만 아니라 평시 담당 해역도 세분화되어 지정되었었는데, 동독 해군에게는 발트해만이 작전 해역이었다.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도 동독은 ‘연안해군’으로서의 전력을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 한편, 적들의 해상연결망 교란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상교통로 보호 · 측면 엄호를 통한 육군전력 지원 · 적들의 상륙전력 전개에 대한 저항 등이 전시 동독해군의 주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동독은 항시 초계 및 경비임무에 관한 초계함·고속함·고속정을 주 전력이자 대규모로 운용하였다. 호위함 정도 성능을 갖춘 소수의 구축함 등은 제한적으로 운용하였지만, 그 성능은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였다. 하지만 동독해군은 언제까지나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거의 소련의 주도로 운영되는 ‘통합해군’의 하위개념으로만 기능했다. 1970년까지 ‘통합해군’에서는 실제로 오직 소련 출신의 장교들만이 참모단을 구성했으며, 이후에도 소련 출신의 장교들이 주요 직을 차지했다는 점 등을 놓고 봤을 때, 연계성 및 유연성에는 소련을 넘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체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NATO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각 회원국의 전략개념을 도출하는 데에서도 상하보다는 다소

수평적인 자세로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중부유럽 및 NATO구성원들의 해군전략은 공통적으로 증강되는 동구권 국가들의 군사력과 해병대 및 해상 육전대 등의 군사적 위협을 해상전력과 함께 항공·수중 전력의 지원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NATO는 또한 ‘전쟁 없이 승리하기’⁴³⁾를 평시 전략 기조로 삼기도 했다. 유럽에 전쟁의 위협이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군사력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여기서는 군사적 행동능력 및 준비태세를 통해 병력의 직접적인 투입이 없이도 정치적으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지나친 근접 방어 전략은 도리어 NATO가 전쟁의 위협을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NATO의 최전선에 있던 서독은 신중한 자세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독연방군의 전투부대는 내륙의 육군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NATO사령부의 작전지휘 아래에 있었다. 이를 위해 NATO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세 가지의 즉각적인 투입 부대를 배치하였고, 평시에도 작전지휘권은 늘 NATO 최고지휘관의 감독에 맡겼다. 여기에서 서독연방군이 늘 함께 했던 연합부대들에는 대서양상비해군(Standing Naval Force Atlantic)⁴⁴⁾, 채널상비해군(Standing Naval Force Channel)⁴⁵⁾, 연합유럽기동군(Allied Command Europe Mobile Force)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NATO 조기경보부대인 AWACS(NATO-Fruehwarnverband)의 관할에는 독일 해·공군으로부터 18대 즉각 투입 가능 전투기가 배치되어 평시에도 노르웨이의 북쪽 지역부터 터키까지 NATO회원국의 영공 및 영해를 연합으로 순찰하는 임무가 이루어졌다. 동맹국들은 위와 같은 통합 부대 운영을 통해서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전력의 가용성 및 유동성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부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이 3가지 부대는 군인들의 교육 및 신무기의 실험을 위해 공동작업장으로서의 효과도 낼 수 있었다.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NATO 회원국들은 이것이 함께 계획하는 과제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NATO는 유사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여 NATO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핵을 군사적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기 공유(Nukleare Teilhabe)를 실현하였고, 서독연방군의 육군과 공군은 이 계획의 일원이

43)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65, ‘Sieg ohne Krieg’정책

44) 1969년에 함부르크급 구축함을 배치하였고, 1972년부터 슬레스비히-홀슈타인 구축함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였음.

45) 1973년부터 다수의 기뢰함들을 배치하였음(수량은 경우에 따라 달리하여 배치).

되었다. 또한, 서독연방군은 연합군 내에서 NATO 회원국들 간의 협조에 따른 총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계획, 전력증강, 그리고 방위사업은 NATO 회원국에 자치적 결정권이 부여되었다. 한편, NATO는 총체적 전력증강 계획에 있어서 회원국들에게 복합적인 조직을 통해 요구를 했다. 이는 아래의 과정⁴⁶⁾과 같다.

[NATO군사위원회(군사적 상황 판단) / 국제군사참모본부(경제적 상황 판단)] → [NATO국방정책위원회(장관방침)] →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 대서양연합군최고사령부, 채널연합군최고사령부] → [전력소요 건의] → [군사위원회] → [국방정책위원회] → [전력소요결정]

여기서 [국방정책위원회]의 결과는 ‘서독연방군 전력증강정책 결정 과정(Bundeswehrplanung im BMVg)’⁴⁷⁾과도 연계되도록 하는 방침을 내세웠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방정책방침] → [목표설정(군사전략목표설정, 서독연방군 개념, 부분적 개념, 각 군종 개념)] → [계획(계획초안, 계획제의, 서독연방군계획)] → [실행(국가예산 견적계산 및 재정계획, 군사력 배치 명령, 연간 연구·개발·획득계획, 기획)] → [관리(보고 및 통지)]

또한 NATO는 이러한 국방정책과 더불어 각 국가들이 공동방위의 개념 안에서 차지해야 하는 전력의 비중을 상정해 놓기도 하였다.

46)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176.

47)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182.

〈표 6〉 중부유럽과 북익지역 해상에서 독일이 NATO군에 기여해야 할 할당량⁴⁸⁾

총 육군 전력	전차	지대공 미사일	전투기	총 해군 전력	발트해에서의 해군 전력	발트해에서의 해군 항공 전력
50 %	60 % 이상	50 %	30 %	30 %	70 %	100 %

서독연방군은 앞서 1960년대의 서독해군전략에서 언급했던 NATO의 ‘유연 반응’ 전략을 기본 개념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직 및 무장되었다. NATO 안에서 서독해군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전방방위’이었다. 여기에 있어서 해군의 일반적 특성상 서독은 높은 전투력, 긴 작전시간, 효율적인 지휘 및 정찰능력과 연계하여 군을 정치적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었다. 여기서 ‘정치적 방향’은 외교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었다. 서독해군과 NATO 회원국들은 유사시 지속적인 전쟁 수행에 있어 미군의 확실한 지원이 매우 필수적임을 직시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6,000km를 넘는 항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이 지원을 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따라서 중요한 심리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대서양을 통하는 해로, 유럽의 연해, 그리고 북유럽 해역의 방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한편, 아래의 표는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군 전력을 비교한 참고자료이다.

〈표 7〉 1985년 기준 NATO·프랑스⁴⁹⁾, 바르샤바 조약기구 통합 해군 전력 비교⁵⁰⁾

NATO	프랑스		바르샤바 조약기구
11 척	3 척	항공모함/헬기항모	3 척
16 척	1 척	순양함	24 척
293 척	36 척	구축함/호위함/초계함	296 척
179 척	5 척	고속정/어뢰정	266 척
159 척	19 척	잠수함	197 척
268 척	23 척	기뢰함	273 척
57 척	7 척	상륙함	95 척
149 척	5 척	상륙정	115 척
530 기	55 기	폭격기/전폭기/전투기	373 기
265 기	48 기	대잠초계기	235 기
435 기	40 기	대잠헬기	250 기

48)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113

49) 프랑스는 1966년에 NATO를 탈퇴했지만 그럼에도 정치적·경제적으로 NATO 구성원들과 꾸준히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음. 일례로 50,000명의 병력과 함께 3개 기갑사단을 서독에 직접적으로 주둔시키면서 중부유럽 방위에 일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 후에 2009년 다시 NATO에 복귀.

50) 독일국방백서1985(Weissbuch1985) p.61

2. 서독해군항공대

본 연구에 이와 같이 서독해군항공대를 별도의 절로 편성한 이유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력을 강화하면서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해군에게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해군에서도 항공 전력 확충의 필요성 내지는 강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이 서독의 항공 전력 운용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명확하다. 당시 서독과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바다는 공통적으로 광활한 대양이 아닌,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이다. 이러한 해상 전장에서 서독해군은 독특하게도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를 운용했다는 점이 특히나 가장 참고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이를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서독해군의 항공대 창설 취지

1940년 4월 9일, 영국의 항공모함 퍼리어스(HMS Furious)에서 발진한 함재기가 독일 전쟁해군의 순양함 쾨니히스베르크(SMS Koenigsberg)를 격침시켰다. 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세로 통하던 대형 군함이 항공기에 당한 첫 번째 사례이자,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해군항공대가 해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전력인지 단적으로 증명해 낸 사건이 되었다(조덕현, 2016, p.317). 이에 대응하여 독일은 수상함을 주축으로 하여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에서 잠수함을 주축으로 하여 수중 게릴라 전투를 이끌어가는 제한적 ‘현존함대전략’⁵¹⁾을 이용했고, 이에 따라 잠수함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의 운용도 한계가 있었으며 전쟁 이전부터 계획했던 균형 잡힌 전력의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연합군 측의 해군으로부터 확실한 열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당시의 동맹국들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해상통제권을 장악하는 데에 실패한 요인 또한 독일국방군에 크게 작용하며 결국 패전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의 재무장 이전 시기인 1949년부터 미국 주도로 진행되

51) 상대국의 함대에 대한 불확실하고 규모가 큰 전투는 지양하되, 승전의 가능성이 높거나 부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함대를 이용하여 자국의 해군 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쟁을 지연시키는 전략.

었던 ‘해군 역사 반 (Das Naval Historical Team)’에서 서독해군의 바탕이 될 전략적 개념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고, 서독은 ‘해군항공대(Marineflieger)’의 창설을 역설했다. ‘해군 역사 반’은 이전 전쟁해군 항공대와 공군에서 복무 경험이 있던 장교들도 모집하여 경험을 나누게 하며 전쟁 중의 전략적 실책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해군항공대가 창설된다면 공군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 행동할 수 있는 독자적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해군은 독자적인 항공지원전력이 없었다. 1935년에 공군최고사령관이자 후에 제국원수가 되어 당시 히틀러 다음으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르만 괴링의 전략적 실책이 그 시발점이었다. 이전까지 존재하고 있던 해군 예하의 해군항공대는 해군이 아닌 공군의 편제로 예속되었던 것이다. ‘항공 전력을 이용한 해상전’이 아닌 ‘해상에서의 공중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당시 전쟁해군에 존재하던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는 공군 소속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써 광범위한 해상정찰 및 해상목표물 타격과 같은 전문 해상작전에 현저한 단점을 노출하였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해난 발생 시 구조임무에서 공군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결국, 협의의 결과로서 서방연합군 측은 북해와 발트해의 적극적 보호임무를 서독에 부여하면서 84기의 전폭기와 각 30기씩의 정찰기 및 대잠항공기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 서독해군항공대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전투기 운용능력 분석

1955년 서독의 재무장이 허용됨과 동시에 1956년 9월에는 킬-홀테나우(Kiel-Holtenau)에 해군항공사령부(Kommandos der Marineflieger)⁵²⁾가 창설되었다. 1957년 4월에는 첫 번째 비행교육대대가 킬(Kiel)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요 병력들은 예하의 제1비행전대 (1.Marinefliegergruppe)에 배치되면서 첫 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정찰 및 경계임무’ · ‘상대편 해상 및 수중전력에 대응’ · ‘조난자 수색 및 구조 SAR(Search and Rescue)’가 바로 그 주된 임무들로써 각 비행단이 추구하는 존재목적도 임무에 따라 달라졌다.

서독의 해군항공대에는 최종적으로 4개의 비행단이 존재⁵³⁾하였으며, 예하에 평균

52) 이후 해군항공사단(Marinefliegerdivision)으로 명칭 변경

53) 현재는 2개의 비행단 (제3비행단과 제5비행단) 만을 보유.

적으로 200기의 서로 다른 종류의 항공기들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독해군은 발트해 지역의 국가들의 해군항공전력의 100%를 부담했었는데, 가장 이례적인 부분은 이를 위해 당시 서독해군이 항공대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평균적으로 120기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력은 ‘정찰 및 경계임무’와 ‘상대편 해상 및 수중전력에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며 전시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수상 및 상륙 전력에 대한 타격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해군항공전력과 공대공전투수행을 상징한 것이었다. 전투기 전력들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지역의 야겔(Jagel)에 위치했던 제1비행단과 에게벡(Eggebek)에 위치했던 제2비행단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한편, 노르트홀츠(Nordholz)에 위치한 제3비행단은 대잠 전력으로 구성된 비행대대를 유지하였고 예하에 해상초계기, 정찰기, 그리고 해상작전헬기가 있었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제4비행단이 킬-홀테나우에 존재했는데, 주로 대잠과 기뢰 탐색 및 제거 임무에 특화된 기동헬기대대(Hubschrauberstaffel)로 구성되었다. 킬-홀테나우에 위치한 제5비행단에는 탐색 및 구조 비행대대가 배치되어 이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이외의 지원임무에 주로 투입되었다. 제5비행단에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정찰기가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아래의 표는 서독해군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4개의 비행단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표 8〉 임무에 따른 서독해군의 해군항공전력 편성⁵⁴⁾

	소재지	주 임무	주 전력
제1비행단 (1959-1993)	야겔	대잠, 대함, 제공권 장악	전폭기, 정찰기
제2비행단 (1958-2005)	에게벡	대잠, 대함, 제공권 장악	전폭기, 정찰기
제3비행단 (1964-)	노르트홀츠	정찰, 대잠	초계기, 정찰기, 다목적전투헬기
제4비행단 (1963-1968)	킬-홀테나우	기뢰탐색 및 제거, 대잠	전투헬기
제5비행단 (1958-)	킬-홀테나우	구조 및 지원	탐색구조헬기, 정찰기

54) 독일 항공전력 백과사전(Die Flugzeuge und Hubschrauber der Marine : 100 Jahre Marineflieger)에 제시된 내용들을 필자가 직접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

서독해군항공대가 운용하던 전투기, 그 중에서도 제트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의 계보는 ‘호커 Mk 100 시 호크(Hawker Mk 100 Sea Hawk)’로부터 시작되었다. 1944년에 영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호커 시들리(Hawker Siddeley)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기존의 영국 공군 소속의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함하는 개념으로 계획됐었던 전투기이다. 1958년에 서독해군항공대의 제2비행단에게 68기가 배치되었고, 요격·폭격·정찰 등으로 나뉘는 임무의 목적에 따라 폭장을 달리하며 운용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독해군의 시 호크는 영국에서 처음 개발 및 생산되었을 때보다 더 개량되어 발전된 성능을 갖추었다. 특히 수직 안정판⁵⁵⁾과 미국에서 도입한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며, 복잡하지 않았던 기체구조와 더불어서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F-104G 스타트파이터(Starfighter)’가 도입되면서 서독해군의 첫 제트엔진 전투기였던 시 호크는 1963-1966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퇴역하게 되었다. 미국의 ‘록히드(Lockheed Corporation)’사에서 제조한 이 전투기는 주간전투기이자 요격기로서 높은 속력(초음속에 도달)과 고도 상승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생산은 1979년에 종료되었으며 서로 다른 버전으로 2,578기가 제조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전투기였다. 서독연방군은 1960-1991년까지 총 916기(공군·해군 포함)의 F-104G를 도입하였다. 서독해군에는 1963년부터 제1비행단에, 1964년부터 제2비행단에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8기가 도입되었다. F-104G의 가장 큰 특징은 6·25 전쟁의 경험이 반영된 전투기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중전투에서 미군의 ‘F-86’이 소련의 ‘MiG-15’에 속도에서 다소 뒤처지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분석이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반드시 더욱 작고 간단하게 설계된, 그러면서도 고성능의 전투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F-104G의 주익⁵⁶⁾은 기존의 전투기들보다 얇고 짧았으며, 최초로 납작한 사다리꼴의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새로 적용되었던 형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단점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내부에 연료의 저장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았다는 것이다. 이에 폭장량 또한 제한되었다는 약점이 있었다. F-104G는 분당 4,000발 사격 가능한 20mm의 기관총과 더불어 평균적으로 1.8톤까지의 유도미사일 및 폭탄을 탑재 가능하였다. 한편, 제2비행단에서는 여기에 정찰기능이 더 강화된 버전으로서 RF-104G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는데,

55) 수직 꼬리날개의 앞부분. 항공기의 동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56) 항공기 동체의 좌우로 뻗는 날개 중 가장 큰 날개부분

여기에는 기관포 대신 'KS-67A'라는 정밀 카메라가 장착되어 목표물이 더욱 또렷하게 포착되는 등 온전히 정찰기로서 기능했다.

안타깝게도 F-104G에는 늘 고질적인 기체결함이 있었고, 이는 운용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앞서 언급했던 총 916기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69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116명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고⁵⁷⁾, 더불어 '록히드 사건'⁵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F-104G는 신뢰를 잃게 된다. 결국 서독연방군에서는 해결책으로서 F-104G를 대체하면서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춘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합작하여 새로운 전투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이 합작개발을 통해 '파나비아 토네이도(Panavia PA-200 Tornado)'가 1979년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후 서독연방군은 이 신형 전투기를 점차적으로 배치하였다. 여기서 서독해군항공대는 제1비행단에 1982년부터, 제2비행단에 1986년부터 토네이도를 배치시키며 F-104G를 단계적으로 대체했다. 서독해군은 서독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던 토네이도 총 357기 중 112기를 보유하고었는데, 이는 서독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전투기 전력이자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전투기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⁵⁹⁾

토네이도는 두 개의 제트엔진과 함께 주익으로서 어깨날개가 장착된 혁신적인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됨으로써 주로 맡게 되는 임무에 따라 여러 버전으로 나뉘었다. 이는 공대공 능력에 중점을 둔 'ADV(Air Defence Variant)' 버전과 공대지 능력에 중점을 둔 'IDS(Interdiction/Strike)' 버전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서독해군에서는 IDS버전에 해상작전에 요구되는 무장을 탑재시켜 운용하였다. 여기서 IDS에는 그 목적에 맞게 가변익⁶⁰⁾이 채택되면서 전투상황에 따라 비행고도와 속도를 더욱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대함공격능력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한 F-104G와 달리 토네이도는 주간전투기가 아닌 전천후전투기로서 주간과 야간 모두 작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었으며 평균 670km라는 F-104G의 항속거리보다 훨씬 더 긴 2,780km를 비행할 수 있었다. 단, F-104G가 처음부터 요격기의 개념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토네이도는 다목적 전투기

57) 서독해군에서는 168기 중 48기의 기체를 잃었고, 23명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음

58) 1950-1970년대에 미국의 록히드 사가 항공기 판매국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뇌물을 전달했던 사건

59)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해군은 항공 전력을 감축하였고, 토네이도의 잔량은 독일공군에 인도되었음

60) 상황에 따라 날개의 위치를 전후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

의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긴 항속거리도 요격기만큼의 민첩성이나 가속 등을 가능케 하는 날렵한 형상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네이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조종석은 2칸(정조종석과 부조종석)으로 구분되었고, 정조종석에는 주로 조종에 집중하는 조종장교가, 부조종석에는 폭장 및 시스템의 운용에 특화된 화기관제장교로가 나뉘어 탑승하는 식의 편성이 이루어졌다. 조종시스템으로서는 플라이-바이-와이어⁶¹⁾ · 그라운드 매핑⁶²⁾ · 레이더수신경보기 · 지형추적레이더⁶³⁾ · 전방시현기⁶⁴⁾가 적용되면서 조종사들의 기체 운용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 무장으로는 두 개의 27mm 기관포와 더불어 기체의 하단부와 날개부분에 목적에 따라 여러 다른 종류의 공대함 및 공대공 미사일, 폭격용 폭탄 등을 탑재하였다.

한편, 냉전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서독해군은 단 한 번도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았다. 당시 세계 3위급의 군사력을 지녔던 서독으로서는 다소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는 서독의 국방비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되었다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독이 설정하였던 잠재적 위협은 오직 바르샤바 조약기구 뿐이었으며 유사시 마주보게 해역 중 해군항공 전력이 부딪히게 될 전장은 발트해였다. 항공모함을 운용하기에 발트해는 작은 해역이었기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또한 서독해군의 항공대가 가장 강했던 시기 보유하고 있던 토네이도의 2,780km라는 평균 항속거리는 야겔이나 에게백에 위치한 비행단으로부터 발진하여 발트해에서 작전을 펼친 뒤 귀환하기에 충분했다.

서독연방군 자체의 창설 취지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기존에 서독이 재무장을 하는 데에 가장 강경히 반대하던 프랑스의 플레벤 수상이 발표한 ‘플레벤 계획(Pleven-Plan)’과 미국 국무부가 1950년에 발표한 ‘서독 재무장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주변국들은 서독이 해군과 공군은 배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유럽방위공동체’ 또한 서독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연합체로서 조직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설된 서독연방군은 미·영·프와 같이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할 명분을 가질 수 없었다. 서독이 늘 기본 바탕으로 설정했던 전략은 철저한 자국방위와 NATO-북약지역 내에서 원활한 NATO 동맹국들과의 협업이었다. 이에 따라

61) 조종석에 보내는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하여 전기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면 이것이 조종면을 조종하는 방식

62) 지표상의 목표물 설정 및 추적

63) 항로 전방의 지면윤곽을 탐지하고 자동 비행 장치에 의해 항로가 설정됨으로써 해당 지형의 상공에서 미리 결정한 일정한 고도로 고속 비행을 가능케 하는 저고도항법레이더

64) 조종사가 전방주시에 집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시야전면에 배치해 시선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장치

서독해군 또한 ‘대양해군’이 아닌 철저한 ‘지역해군’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항공전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IV. 대한민국 해군의 현실적 전략기초

1. 동·서독 통일 전 서독과 현 대한민국의 안보정세 및 해군전력 비교

1) 대한민국과 서독의 안보정세 비교

군사적 대립의 중심이자 최전선에 위치한 서독과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특히 국제안보정세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분단국가로서 두 국가 모두 반대세력으로부터 분명한 위협이 있다. 독일을 시작으로 이탈리아까지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는 확실한 지정학적 경계가 존재하여 진영이 나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을 경계로 하여 대한민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전선에서 대규모 병력을 통한 군사력 투사의 필요성을 느낀 서독과 대한민국 모두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국가로부터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리 잡게 하며, 징병제를 통해 군대를 경험한 청년들의 사고방식에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깊게 심어놓는다. 다만, 대한민국이 6·25전쟁을 통해 단지 냉전이 아닌 실제 전쟁을 관통한 국가라는 점에서 분단 갈등의 골은 더 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국가 방침으로 삼은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제왕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동구권 국가들이 서기장을 중심으로 권력행사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다른 직책들을 편성한 것과 달리 북한은 한 명의 위원장이 독재를 하는데, 이는 개인의 판단 하에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에 수월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당시의 서독과 현재의 대한민국 모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원조로 경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육군 위주로 대규모 병력의 미군이 항시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유사하다. 독일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일 점령 후 미국이 분할 받은 지역에 발을 들이며 시작되었다. 냉전의 후반기인 1985년에는 무려 246,875명의 병력이 서독에 주둔하며⁶⁵⁾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

다. 이는 NATO의 대서양 지역에 더욱 신속한 군사력 투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을 광복과 6·25전쟁 이후 체감하였다.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미군 전력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소속으로 현재는 약 28,500명의 병력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⁶⁵⁾ 미군이 각 국가에 주둔하는 이유 자체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서독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접하고 있는 경쟁국들의 특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안보협력체 내에서 정식 회원국이자 정예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의 경제적·정치 외교적·군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사시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미군이 당시 서독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켰던 이유는 동독 하나만이 아닌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그 정도까지의 관계라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대규모 연합군을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며, 당시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첨예한 대립상태가 유지되었을 때만큼 현재 미국의 입장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는 주독미군의 그것과 큰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NATO를 통하여 서독이 미국 이외에 주변 국가들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구축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에게 유사시 병력 전개가 확실시 되는 전략적 안보파트너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다. NATO 조약 제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NATO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한 독자 또는 집단 방위권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공격받은 회원국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늘 대립관계에 있던 영국·프랑스·독일이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이러한 대규모 연합군을 유지한 건 사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현재까지도 NATO는 공동으로 각종 테러 및 잠재적 위협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는 전 국민적 반

65) Sueddeutsche Zeitung (2018.06.30.) “Welche Bedeutung US-Truppen in Deutschland haben”

66) 『연합뉴스』. (2019.05.24.).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발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해상·공중 전력⁶⁷⁾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이버전에서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유사시 한국 군에 든든한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⁶⁸⁾,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⁶⁹⁾파기를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이 최근 ‘이즈모급’ 헬리콥터 모함을 개조하여 F-35B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나타난 여론의 반응은 동맹국의 전력이 강화될 때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라 혹시 모를 불안감이었다.

2) 대한민국 해군과 서독해군의 비교를 통한 현 대한민국 해군전력 현황 분석

한 국가의 안보전략을 파악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군사력을 분석함으로써 그 대략적인 기초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합동기획’은 [국가안보 전략지침 · 국가전쟁 지도지침 · 총무계획⁷⁰⁾]로 구성되는 ‘국가기획’과 [국방기본 정책서 · 국방전시 정책서 · 국방정보 판단서 · 국방 증기계획서 · 국방 예산서 · 국방예산 배정기획서]로 구성되는 ‘국방정책기획’을 통해 시작된다. 이후 ‘합동기획’의 큰 틀 안에서 [합동 전략 · 작전기획 및 시행 · 전투발전 체계]가 전력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요구를 한다. 군의 전력은 이렇게 ‘국가기획’, ‘국방정책기획’, 현실화시키는 마지막 단계의 ‘합동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확충되기 때문에 무기체계는 그 국가 전략의 상징이자 주변국을 향한 대전략의 메시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황해-남해-동해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영해에 이어 동서로 뻗어져 있는 북방한계선(NLL)까지의 경계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이다. 또한, 서북 5개 도서와 울릉도·독도에도 또한 수시로 해군 전력이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 영해를 넘나들며 항해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훈련이나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비롯한 작전을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러한 임무에 맞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꾸준

67) 일본은 군이 아닌 자위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육·해·공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였음

68) 일본이 설정한 백색국가들은 일본에게 있어 안전 보장 우호국이자 첨단기술 및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도 수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69) GSOMIA (한·일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70) 전쟁이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히 전력을 보강한 결과 더 이상 1980년대까지의 ‘연안해군’으로는 결코 평가받지 않는 우수한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는 41,000여 명의 병력이 있으며(해병대 병력 제외), 아래의 표는 현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수중·항공 무기체계 전력에 관한 자료다.⁷¹⁾

〈표 9〉 대한민국 해군 수상·수중 전력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 충무공 이순신급 / 광개토대왕급	3척 / 6척 / 3척
호위함	대구급 / 인천급 / 울산급	2척 / 6척 / 6척
초계함	포함급	13척
고속함·정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 검독수리급 (유도로켓 고속정) / 참수리급 (고속정)	18척 / 4척 / 45척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3,000t) / 손원일급 (1,800t) / 장보고급 (1,200t)	(1척) / 9척 / 9척
기뢰함	남포급 (기뢰부설함) / 원산급 (기뢰부설함) / 양양급 (기뢰소해함) / 강경급 (기뢰탐색함)	1척 / 1척 / 3척 / 6척
군수지원함	소양급 (군수지원함) / 천지급 (군수지원함) / 청해진급 (잠수함구난함) / 통영급 (수상함구난함)	1척 / 3척 / 1척 / 2척
상륙함	독도급 (강습상륙함) / 천왕봉급 (도크형 상륙함) / 고준봉급 (전차상륙함)	2척 / 4척 / 4척

〈표 10〉 대한민국 해군 항공 전력

대잠초계기	P-3C	16기
대잠초계헬기	슈퍼링스 / 와일드캣	22기 / 8기
다목적수송헬기	UH-60P / UH-1H / MUH-1 마린온	8기 / 14기 / 7기

NATO 내에서도 확고한 군사적 강국이자 ‘지역해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던 냉전기 후반의 서독과 비교해도 현 대한민국 전투 수상함의 상대적 전력은 당시 서독해군이 가지던 전력의 위상과 비슷하거나 살짝 앞선다. 당시 서독의 구축함들이 ‘소브레메니급(Sovremenny)’과 같은 경쟁국 소련의 대표적인 구축함보다 수량은 물론 성능에서도 다소 열세였던 반면, 대한민국의 구축함들은 현재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비롯하여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그 수에 있어서는 경쟁국들

71) 2018 국방백서의 p.244에 기반,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 후 필자가 직접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로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서독과 대한민국의 호위함·초계함·고속함·고속정 등의 중소형 전투함정들의 보유 상황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수에 있어서는 각기 인접하고 있는 해역의 면적과 상대편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두 국가 모두 당시 주변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우세하지도 열세하지도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평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독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의 차이가 명백한 부분들은 바로 잠수함 전력과 해군항공 전력이다.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 서독해군은 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비록 동독해군에는 잠수함이 전무하였어도 당시 소련 해군에는 어뢰가 주 무장인 재래식잠수함부터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원자력잠수함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척수에 있어서도 NATO와 프랑스 해군의 총 잠수함들보다도 우세했다. 이에 비해 서독해군이 18척을 보유하던,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성능의 206급 잠수함은 500톤이 조금 안 되는 소형 재래식잠수함이자 주 전력이었다.⁷²⁾ 대한민국 해군은 비록 원자력잠수함과 같은 무기체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장보고급’과 ‘손원일급’과 같은 수중배수량 1,200t과 1,800t의 재래식잠수함들을 비롯하여 최근 3,000t에 달하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건조에도 성공하여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잠수함 전력과 현 우리나라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북·중·러의 통합 잠수함 전력이 시대적·상대적으로 유사하다고 했을 때, 현 대한민국은 냉전기 서독이 마지막으로 보유하던 잠수함전력과 비교할 시 그 사정이 조금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해군항공 전력은 대한민국 해군이 서독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서독해군은 잠수함전력의 공백을 주로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를 통해 다소 해결하였고, 소련 해군항공대가 보유하던 전투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 해군 또한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초계기와 헬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P-3C’에 이어 ‘P-8 포세이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될 계획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해역을 담당하기에는 기체 하나하나가 맡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에 더해 미래 해상전장에서 대한민국 해군항공 전력이 그 약점을 가장 뚜렷하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투기의 공백이다. 중국 해군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중국은 특히나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며 항공

72) 실제로 서독해군은 더욱 규모 있는 잠수함 전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알았기에 이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212급 잠수함의 개발에 착수했지만, 개발의 완성 및 전력화는 독일 통일 이후에 이루어졌음.

전력을 상당히 증강하였다. 일본 해군이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헬기항모 개조를 결정한 데에 이어 대한민국 해군 또한 경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구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해군조종사의 준비된 인력도 없는 것은 물론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서독해군의 사례를 대한민국 해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1) 해군전력 발전방향

‘전략론’을 편찬한 군사평론가 리델 하트(Basil Henry Liddell Hart)는 전략과 대전략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전략이란 전쟁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에 제한되지만, 대전략은 전쟁 수행 이후 평화를 유지하는 단계까지도 상정하며 평시에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적용하는 수준에 이른다. 한편, 대전략의 한 분야로서 해양력은 곧 국력이자 경제력으로서 존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강한 해양력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군력은 따라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서 여겨진다.

19-20세기부터 열강세력으로 자리잡은 국가들의 위상은 지금까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제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경제력이 매우 강해져 현재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까지 다소 고립주의를 택하던 미국은 전후 마한(Alfred Thayer Mahan)이 권고했던 공세적 해양국가로서의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당시 소련의 군사력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해권 장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시대를 관통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영토들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이 각 지역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남아있다.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Falklands War)’이 해외영토에 대한 방위의 목적으로 수행한 전쟁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열강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점은 현재 모두 ‘대양해군’ 전략을 적용한 국가의 해양력이 그들의 대전략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국방방첩 및 안전보장국(Defense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에서 규정한 ‘대양해군’이란, 열려있는 해양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벗어나 국외에까지 세력을 투사하는데 주로 한 척 혹은 그 이상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표면적으로 ‘대양해군’의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해군력을

계속적으로 증강시켜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제이나, 무기체계를 개량 및 개발하기에 앞서 추구해야 할 대전략이 어떠한지 고려해 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다는 주변국들과의 무역과 외교적인 교류가 행해지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켜내는 최일선이자 완충지이다. 현재 우리가 일구어 낸 전 세계 11위 경제력은 국력을 뒷받침하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한 상당히 신장시켜주었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여러 대륙과 해양에 능동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 위치와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바다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해군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필자는 과거 서독의 사례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참고하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 서독해군은 ‘해군 역사 반(Das Naval Historical Team)’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전쟁해군이 범한 전략적 실책들을 철저히 분석한 바 있다. 서독해군은 전력의 규모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냉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독은 자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직시하여 ‘대양해군’보다는 ‘지역해군’을 기본 개념으로 삼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을 상대로 펼친 제한적인 ‘현존함대전략’이 동맹국 해군으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독은 ‘NATO-북익지역’내에서 꾸준히 균형 잡힌 해군 전력을 유지하여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에 걸맞는 제대로 된 ‘현존함대전략’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상대방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주변의 안보 파트너들과 항상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한민국에게 바다는 현재까지의 대전략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는 ‘대양해군’을 지향하기 보다는 ‘지역해군’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현재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해역의 평화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완강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군은 그에 타당한 전략과 전력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전력의 확충을 통한 경제적 낭비는 지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평시에나 전시에나 ‘현존함대전략’을 주 전략으로 삼아 균형 잡힌 해군을 건설하는 한편,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 내의 해군전력 증강계획에 의하면, ‘광개토-III급

(Batch-II) 신형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KDDX), 호위함(FFX), ‘장보고-III급 (Batch-I) 잠수함, 상륙함(LPX) 등의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⁷³⁾,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수직형전술함대 지유도탄이 신규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광개토-III급 (Batch-II)사업이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광개토-III급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수직미사일발사체계 ‘SM-3’를 탑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추 예정이라고 하였다.⁷⁴⁾ 기본체계(Baseline)가 9버전으로 개발되어 기존의 7.1버전보다 더 다양한 종류(SM-3, SM-6)의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SM-3는 10-20km의 요격고도를 갖춘 패트리엇보다는 물론, 100-150km의 요격고도를 갖춘 사드보다도 더 높은 요격고도인 500km까지 도달한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뒤 탑재하는 데까지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서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대공방어체계 소요의 적절성은 확실한 상태이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서 개발된다는 것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도입한다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도, 중국 해군의 지속적인 ‘O52D급’구축함⁷⁵⁾ 건조 계획에 맞서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 신형 전투함 사업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해군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실한 구축에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유사시 전쟁수행에 있어서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인 방공임무를 펼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미 한 척의 건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두 척의 추가 건조가 확정적인 ‘장보고-III(Batch-I)’사업의 도산 안착호급 잠수함이 ‘Batch-II’에 넘어가서는 수중 잠항시간이 증가되며 기본 속력을 위한 출력이 향상되는 등 기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납 축전지를 대신하여 리튬전지를 탑재함으로써 기존의 AIP시스템⁷⁶⁾에서 나타난 재충전 및 작전 지속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더불어 무장 능력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Batch-I보다 수중배수량이 340t이 더 많이 나가고 길이도 6m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장착되던 6문의 수직발사관도 10문에 이를 예정이다. 전투함 건조능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능력

73) 2017년도의 신규 전력증강사업으로 포함됨

74) 『서울경제』, (2019.04.30.). “신형이지스함 SM-3 탑재...3,450t급 잠수함 리튬 전지 장착”

75) 2012년 이후 중국 해군에서 이미 13척을 실전투입에 성공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건조 중인 만재배수량 7,300t의 ‘O52D급’구축함. 거의 이지스에 필적하는 위상배열레이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예상된다.

76)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Air Independent Propulsion)

도 갖추게 되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수중전력을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잠수함 강국들에 비해서 그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세하기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전력은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은밀성을 갖추어 항시 전쟁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에 있어서도 적합한 전력이기 에 이를 위한 연구 및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이번 해에 발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비는 5년간 290조 5000억 원(방위력 개선 : 103.8조 / 전력 운영 : 186.7조)이 투자될 예정이다.⁷⁷⁾ 전년도에 비해 약 20조 원이 가량이 증가한 액수이며, 이는 국가적으로 건설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발전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한 태세를 방증한다. ‘국방백서2018’과 중첩되지 않는 새로운 해군전력 발표 내용들에는 ‘제6항공전단’의 ‘항공사령부’로의 승격과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건조’가 있었다. 합참의장의 주재로 이루어진 합동참모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국방중기계획에서 발표된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건조계획은 만재배수량 약 30,000t의 경항공모함으로서 F-35B⁷⁸⁾전투기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다. 새로이 도입할 예정인 해상초계기 P-8과 더불어 대한민국 해군은 공중우세의 효율성을 개선할 목적인 것이다.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는 가운데 중국의 해양전략 또한 공세적이며 그 기초가 특히나 다수의 항공모함 전단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중국이 설정한 방어선 개념 중 제3방어선은 본토로부터 270해리 반경인데, 이 방어선은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가능한 경계가 된다. 미국 해군정보국의 분석(2015)에 의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3방어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처 수단이 수상함 · 잠수함 · 항공기 · 해안방어 순항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군은 전방위 비대칭위협에 대응하여 ‘거부적 억제’⁷⁹⁾와 ‘응징적 억제’⁸⁰⁾ 전략을 통해 국가를 철저히 방어하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능력이 ‘원거리 감시능력’과 ‘정밀 타격능력’이다. 해군의 범위 내에서는 해군항공 전력이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하기에 단연 중요한 무기체계 이므로 대한민국 해군이 전투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적절하나, 그

7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방부』. (2019.08.10.). “20~24 국방중기계획”

78) 미국 해병대에서 주 전력으로 이용하고자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79)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략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유사시 이익보다 손해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침략을 방지하도록 함

80) 상대 전력에 대한 잠재적 보복 내지는 보복의 위협을 통해 침략을 방지하도록 함

수단의 방향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해군전략은 ‘지역해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 ‘대양해군’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전략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항공모함의 운용에는 전단급의 편제단위가 요구되며, 이러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 계획된 30,000t이라는 크기는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기수 자체가 제한되는 모호한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 해병대의 항공지원 전력으로서 개발된 수직이·착함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함재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전투기는 작전 개시 이전에 이미 이·착함에 많은 연료를 소진하기에 체공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무장량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안으로서 서독해군이 당시 소련의 해군 항공 전력에 대응하여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를 운용했던 사례가 대한민국 해군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해역은 넓지 않기에 주변국과의 거리는 가깝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있어서 굳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보장해 주기도 하며, 항공모함 전단의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을 전투기의 획득 및 관리에 더 투자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아무리 해·공군 간의 합동작전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해군 내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작전만큼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해상작전을 펼치게 될 시에는 저고도 비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등, 해군 소속의 조종사는 그 분야에 있어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패적인 항공전력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서독이 해군과 공군 전투기의 작전 구역을 분류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해군 또한 공군과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지상에서 발진하는 독자적인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해상 위의 공중을 해군이 담당하고 지상 위의 공중의 지역을 공군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맞게 각 군 조종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유사시 공군이 전통적인 임무인 지상전의 보조 및 폭격을 수행해야 할 때, 항공모함과 같은 세력에서 발함하는 전투기들은 해군 소속의 전투기들이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대응하는 방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F/A-18’과 같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해군에게 적절한 즉시전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독일 공군에서도 핵무기 공유의 군사적 수단으로서 운용하던 ‘토네이도’ 전투기의 대체를 위해 ‘F/A-18’를 고려하고 있으며⁸¹⁾, 미국 해군에서도 주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 검증에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유사시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의 연합작전을 상정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된 무기체계를 운용함

81) F/A-18 oder Eurofighter sollen den Bundeswehr-Tornado ersetzen (2019.01.31.) Focus.de

으로써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존재한다. 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예 지상발진용으로 개발된 'F-35A'를 추가적으로 더 도입하는 방향이다. 한편,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 해군항공대에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보내어 전투기의 해상작전에 대한 전문적인 운용능력과 경험을 습득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서독해군은 1980년대에 주 전력으로 운용하던 토네이도 기종의 모든 조종사들에게 미국 위탁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조종장교에게는 '항공운항술 (Aviation) 8주' · '초등/중등비행교육 (Grund-und Fortgeschrittenenausbildung) 13개월'의 위탁교육이⁸²⁾, 화기관제장교에게는 '초등교육(Grundausbildung WSO) 9개월'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졌었다.⁸³⁾ 대한민국 해군의 P-3C 전술장교들이 국내 자체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만큼, 위와 같은 가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항공 전력 운용능력의 향상에 더해 미국 해군과의 연합작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역해군'의 규모를 유지하되 충분한 국방비의 투자로서 그 전력을 확실히 운용·유지하는 건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구축함·잠수함·항공기 외에도 호위함·초계함·기뢰함·군수지원함 등과 같은 전력들 역시 지속적인 작전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으며, 수시로 해상도발을 일으키는 북한에 대항한 경계전력으로는 현재도 항시 고속함·정을 출동시키고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더 개량된 성능의 고속함들을 점차 배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걸맞는 최첨단 기술의 확보에 23.3조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국방전략기술 8대분야로 설정된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 첨단 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 미래형 첨단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다.

82) 조종장교의 위탁교육에 해당하는 '토네이도 기종으로의 전환교육(Umschulung Tornado) 3.5개월'은 독일과 영국 두 국가에서 이루어졌음

83) 1956-1996년의 독일해군전력에 대하여 다룬 자료인 "Die Schiffe, Fahrzeuge und Flugzeuge der deutschen Marine von 1956 bis heute"의 p.482를 참고하였음

2) 주변국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비

냉전기 서독은 NATO 안에서 항시 대서양상비해군과 채널상비해군⁸⁴⁾에 해군전력을 배치시키고 자국의 해군전력을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서 보충하였다. NATO에서는 ‘유럽연합 최고사령부(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 사령관에게 전체적인 작전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 예하의 지역담당 지휘관들에게 작전 통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9개국 간의 연합전력에 대해 일괄적인 통솔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평시에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이 유지되고, 전시에는 제2작전사령부와 소수의 병력 이외에는 모든 대한민국 군 전력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대한민국의 방위에 지원되는 미군 측 증원전력은 육·해·공·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기의 규모다.⁸⁵⁾ 위기가 고조될 땐 전쟁억제와 위기 완화를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실시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할 땐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위와 같은 전력 증원이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한편, NATO의 최고 지휘관은 작전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 연합사령관은 작전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국적 동맹인 NATO에 비해 한·미 동맹은 양국 간의 연합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휘체계가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다. 즉, 상황이 위급할 시 이러한 사령부의 구조는 더 나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박휘락, 2019). 비록 근래 들어 미국의 전략기조가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항시 전비태세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미국 내 정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어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지켜내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상당 부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전력의 증원을 필수적으로 지켜내는 것 외에도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로의 개칭을 통해 인도를 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선포한 만큼,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 관계는 이전만 못하다는 국내 여론이 있음에도 일본 또한 분명히 강력한 해상전력을 갖추고 있는 우방국으로서 상정해야 한다. 특히 해군 전력 증원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84) 2012년부터는 영국에 본부를 둔 ‘연합해군 사령부(Allied Maritime Command)’를 조직하였음

85) 2018 국방백서 p.46 주한미군 증원 전력 부분 참고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서 서독해군이 NATO에 속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해상에서 담당하는 지역 그 자체부터 전력의 할당량까지 설정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인 동해를 일본 해군과 함께 공동으로 방위하고,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황해에 있어서는 우리 해군이 미 해군과 단순히 연합훈련만 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함께 작전하고 움직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일본은 태평양 해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적 움직임과 중국·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입장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육·해·공 전력과 더불어 우주·사이버·전자전으로의 분야까지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다차원형단방위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조은일, 201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 대립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협력했던 이유는 바로 독일의 침공이라는 더 큰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또한 대전략의 관점에서 시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서유럽 사회에서 전통적 냉전은 종식됐으나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NATO는 그 체제와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해군에서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러시아의 해군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⁸⁶⁾ NATO는 특히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 대한민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조직이며, 그 조직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전력의 강력함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2009년 12월에 대한민국-NATO간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바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NATO와의 동맹관계도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NATO 회원국들과의 외교적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연합훈련 내지는 연합작전에도 정기적으로 해군의 전력 일부를 파견하여 그 군사교리와 전략의 다양성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 론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주변에는 미국에 다음가는 군사 강대국들을 마주하는 대한민국은 특히나 해군 전력을 최상위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86) 『국방일보』. (2019. 09. 16.). “프랑스 해군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건조와 프랑스의 야심”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그 능력을 즉시 보유할 수 없다면 우방국들과의 협력과 같은 대안으로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이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고, 유사시 주변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동맹이 현재까지 굳건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일본·인도와 같은 국가들 및 NATO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현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시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견제하면서 전쟁 발발 시 NATO 회원국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특히나 소련에 대한 심리적 승리를 거둔 서독이다. 서독은 ‘NATO-북익지역’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비태세를 굳건히 하였는데, 여기서 해군은 서독의 대전략과 해군 전략에 맞게 적절한 ‘지역해군’의 전력을 꾸준히 갖추었다. 비록 냉전이 종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잠수함 전력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1990년대 초까지 기간을 상정하고 그 전력을 확실히 증강시키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독 해군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참고할 만한 사례는 바로 항공전력 확충의 방향성이다.

‘대양해군’의 상징적인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는 항공모함은 대전략의 분야에 해당될 정도로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특수한 외교적 상황은 당연하게도 국내 여론이 해군에 기대하는 바를 막중하게 한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에, 혹여나 항공모함이 도입될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그 정치적 여론의 여파가 해군에게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역해군’으로서의 굳건한 전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세계를 무대로 즉각적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대양해군’으로서의 역할은 그 시기가 온 후 우리 해군 스스로 충분히 거머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 개괄적 함의(제1590호 (15-43))”, 한국국방연구원(2015).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제33권 제1호, 통권 제115호). 국방정책연구(2017).
- 박휘락. “나토와 한미동맹의 군사지휘체제 비교 : 지휘관계를 중심으로” (제75집. 제2권.). 한국군사학논집(2019).
- 유영철. “러시아의 2019년 전반기 전략동향 평가 및 함의”. 한국국방연구원(2019).
- 조은일.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제1742호(19-3)). 한국국방연구원(2019).
- Bruns, Sebastia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ederal German Navy, 1945-1970”, 2005.
- 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The Military Balance, 2019

〈저서〉

- 조덕현. 『전쟁사 속의 해전』. (서울: 신서원, 2016)
- Basil Hery Liddel Hart. 『전략론』. (주은식). (서울: 책세상. 2018). (원전은 1967년 도에 출판)
- Florian Reichenberger, Der gedachte Krieg, Vom Wandel der Kriegsbilder in der Bundeswehr. (Oldenburg: De Gruyter, 2018)
- Gerhard Koop, Siegfried Breyer. *Die Schiffe, Fahrzeuge und Flugzeuge der deutschen Marine von 1956 bis heute*. (Bonn: Bernard & Graefe Verlag, 1996)
- Jann Markus Witt. *Von Schwarz-Rot-Gold zu Schwarz-Rot-Gold*. (Berlin: Palmedia, 2011)
- Ulf Kaak. *Die Flugzeuge und Hubschrauber der Marine*. (Muenchen: GeraMond Verlag GmbH, 2014)

〈정부문서〉

2018 국방백서. (2019). 대한민국 국방부.

Weissbuch 1985 : Zur Lage und Entwicklung der Bundeswehr(1985년도 독일 국방백서). (1985).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독일 국방부).

〈신문기사〉

『국방일보』. (2019. 09. 16.). “프랑스 해군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건조와 프랑스의 야심”

『뉴스1』. (2019.08.17.). “트럼프, 참모진과 아프간 미군 철수·평화협정 방안 논의”

『뉴스1』. (2019.01.28.). “나토사무총장 “내년말까지 방위비 111조 증액””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방부』. (2019.08.10.). “20~24 국방중기계획”

『서울경제』. (2019.04.30.). “신형이지스함 SM-3 탑재...3,450t급 잠수함 리튬 전지 장착”

『연합뉴스』. (2019.09.25.). “韓美, 오늘 방위비협상 이틀째 회의...‘밀당’ 지속”

『연합뉴스』. (2019.08.10.). “거세지는 美의 ‘獨 국방비’ 압박...미군 철군 가능성 재차 언급”

『연합뉴스』. (2019.05.24.).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연합뉴스』. (2019.01.12.). “러시아, 핵 장착 수중드론 ‘포세이돈’ 30기 실전배치”

『연합뉴스』. (2018.09.27.). 中“‘동방-2018’ 훈련 참가 정례화 러시아와 협의해 결정”

『KBS뉴스』. (2019.07.31.). “북한 신형 잠수함, SLBM 3개 탑재..”핵 타격 작전 가능“

『KBS뉴스』. (2019.01.10.). “‘시리아 철군’으로 명확해진 트럼프의 세계전략..한반도 영향은?”

Focus.de. (2019.01.31.). “*F/A-18 oder Eurofighter sollen den Bundeswehr-Tornado ersetzen*”

Sueddeutsche Zeitung. (2018.06.30.). “*Welche Bedeutung US-Truppen in Deutschland haben*”

Sputnik News. (2019.08.27.). “*Northern Fleet Hydrographical Service Confirms Discovery of New Russian Islands in Arctic*”

Sputnik News. (2019.09.03.). “*New Borei-Class Attack Submarine to join Russian Pacific Fleet - Report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10.04.). “*The PLA Navy :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Abstract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naval Strategy in West Germany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Navy

Shin, Hong-Jung *

This study is written to bring the proposal forward for the direction of south korean naval force.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ircumstance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e area of Pacific Ocean, are changing very rapidly. North Korea has been always the conventional existing intimidator for South Korea since the 6·25-War.

Additionally, the strengthening movements of the national defense, which is easily noticed from China and Russia, is also an other part of intimidating countries against South Korea. Those three mentioned countries are continually developing the asymmetrical warfare systems, for example a strategic nuclear weapon.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Asia-Pacific Rebalancing-Strategy has been changed as an East Asian foreign policy. Nowadays, Trump Administration renamed the 'United States Pacific-Command' to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The purpose of this is not only letting India to participate in american alliance, but also reducing an economic burden, which is often mentioned in USA.

West Germany was located in the very similar geopolitical position during the Cold War just like South Korea these days. And that's why the strategy of West German Navy is worthy of notice for south korean naval force to decide its suitable strategy. Most of all,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to refer to this study are the plan to expand naval air force and the

* Korean Naval Academy 3.Grade, Studying abroad on a government scholarship by German Navy Officer Training Course

realistic political stand for us to take it. In conclusion, I laid an emphasis on maintenance of 'green-water-navy'. instead of selecting the strategy as a 'blue-water-navy'. The reason I would like to say, is that south korean navy is not available to hold the unnecessary war potential, just like Aircraft-Carrier. However, this is not meaning to let the expansion of naval force carelessly. We must search the best solu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firm peace within the situation. To fulfill this concept, it is mostly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stream of laying down a keel of destroyers, submarines and air-defense-missile, as well as the hight-tech software system, taking a surve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best solution of future aircraft by south korean navy is likewise necessary. Besides, we must also set the international diplomatic flexibly. As well as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US Forc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otential allied nation.

Keywords : West Germany, strategy as green-water-navy, Naval Air Force,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논문접수 : 2020년 1월 9일 | 논문심사 : 2020년 1월 20일 | 게재확정 : 2020년 1월 30일